

새싹포커지 3월호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3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2014년 새내기 콘테스트



2014년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새내기 콘테스트가 열리게 되었다. 각 과마다 노래나 댄스를 장르로 하여 두 팀 정도가 참가하였다. 새내기 콘테스트는 3월 18일 예선을 거치고 예선에 통과한 9개의 팀이 4월 3일 본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는 15명의 지원자를 받아 두개의 팀이 댄스로 참가하게 되었다.



두 팀은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였다. 참가한 새내기 학생은 “힘들었지만 재밌기도 하고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가면서 아쉽기도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친구들과 맞춰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2014년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직소양증진 프로그램



3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솔브릿지 국제대학 1층에서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 63명과 교수님 6분, 졸업생 2명, 학생회 임원 6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래 처음으로 갖는 학과 행사로, 새로 입학한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과 궁금한 점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올해로써 6번째 입학생을 맞이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신입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동기들과 한자리에 모여 동기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교수님들과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며 유아교육과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크로톤빌을 통한 베트남 해외연수

이번 방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크로톤빌을 통한 베트남 해외 연수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으며 한국의 문화와 우리 우송대학교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약 두 달간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문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방문했던 관광지는 대통령 공과 전쟁기념관, 대성당, 우체국, 그리고 절이었습니다. 대체로 유럽풍의 건물이 많아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LG 화학 공장과 COACH, 신발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의 운영 과정도 직접 관찰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 탐방이 끝난 뒤에는 베트남 인형극인 Water Puppet Performance를 관람했는데,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인형극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목표했던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베트남 자매 대학교인 UEH 대학교를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준비한 패션쇼 공연을 보고, 함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준비하는 동안



모두 영어를 사용해야 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지만 덕분에 영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K-pop과 전통놀이, 난타와 태권도 그리고 전통 의상 패션쇼까지 문화공연을 선보였고, 공연이 끝난 뒤에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벤틀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며 자유롭게 관광을 하였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베트남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힘들었던 만큼 나 자신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함께 했던 교수님들, 다른 학과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정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꼭 한번 떠나고 싶었던 해외연수, 막연히 떠올렸던 해외연수가 아닌 정말 많은 것을 얻어온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기사를 읽게 되는 친구들과 후배들도 주어진 기회를 잡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성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소개합니다.

동화책은 어린이들만 읽는다는 선입견을 깨고 아동이 아닌 성인들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2학년 아동문학을 담당하고 계신 김현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현지 교수님께 성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을 추천 받아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화책은 ‘아가마중’입니다.



이 동화책의 저자는 고 박완서입니다. 유일한 가족 에세이 그림책인 ‘아가마중’은 작가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책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노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비로소 완전해지는 가족의 의미가 짙은 감동을 담아낸 책입니다. 책 속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고착현상

프로이드의 고착현상이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이론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 한 경우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과잉충족을 하였을 시에도 누렸던 기쁨에 머물고 싶어하므로 고착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고착현상이 일어나면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행되지 못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생활방식 그대로 머물러 버리게 된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이론은 각 발달단계에서 심리성적 에너지(Libido)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 이 이론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의 총 5 가지 단계가 있으며, 단계마다 심리성적 에너지의 결핍, 과잉이 이루어진다면 고착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구강기는 입에서 만족을 얻는 단계로 결핍 시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고립된 인간 관계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항문기는 배변훈련으로 어머니와의 인

두 번째 동화책은 ‘돈키호테’입니다.



원작은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비리를 비웃는 스페인의 소설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이지만 동화적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책 ‘돈키호테’입니다. 시기상 자유롭게 작품을 쓸 수 없었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통해 당시 사회를 교묘하게 비판하면서 종교와 연애의 자유, 계층간의 평등, 정의로운 재판 등 꿈꾸는 사회를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실감이 없는 인물에서 주위의 시선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뜻을 굽히지 않고 다가서는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는 돈키호테를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성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두 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만 잔뜩 쓰여 있어 책을 읽는 것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그림이 곁들여져 읽기에 부담이 없는 동화책으로 독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의 결핍은 유아의 성격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근기는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는 단계로 이성의 부모를 과도하게 동일시하면 이후 정신성적 정체성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잠복기는 사회성,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서의 결핍은 자신감의 쇠퇴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기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단계로 이 시기의 결핍현상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성인이 되거나 비행 등의 표출로 나타난다. 프로이드는 고착현상은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 서부터 올바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의 적절한 시기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에 맞게 대처하며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주는 등 유아의 결핍이나 과잉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고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송유치원 소식

입학과 개학



우송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만 3세 유아들과 만 4세 8명, 만 5세 1명의 신입 유아가 3월부터 함께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아들을 맞이하여 교실의 구성을 바꾸어 변화를 주었다. 3월은 신입 유아를 맞이하고 적응해 나가는 달이기 때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없었지만 3월 12~14일에 진행된 신입 유아 부모 집단면담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3월 집단면담은 자녀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부

모들과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송유치원은 어떤 교육적 목표를 향해 가는지, 담임교사의 교육적 철학이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적인 정보도 제공하였다. 아직 학기 초라서 유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이번 집단면담을 통해 담임교사들이 유아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김유리 김예솔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강현아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